

古典名句

신정근

성균관대 유교문화연구소장

불능진해 不能盡解, 의난이극지 宜難以極之 (논형 論衡)

트라우스의 아내 파울리네를 상징하며, 두 대의 하프가 감미로운 선율을 자아낸다. 마치 상처 입은 영웅을 치료해주는 여인의 부드러운 손길처럼. '영웅의 생애'는 슈트라우스 자신의 자아상을 강하게 반영하여 역경을 극복하며 궁극의 성취를 향해가는 한 영웅, 즉 위대한 예술가의 초상을 그린 작품으로 간주되고 있다.

● 영웅을 그린 음악은 지금도 탄생 중이다

그 밖에도 쇼팽(1810~1849)이 작곡한 피아노 독주곡인 폴로네이즈 6번에도 '영웅'이라는 부제가 붙었다. 일설에 의하면 막 완성된 이 곡을 쇼팽이 연주하고 있을 때, 갑자기 투구를 쓰고 전투복을 입은 고대 폴란드 전사들의 행렬이 전진해오는 환각에 빠져 공포에 질린 나머지 방에서 뛰쳐나갔다고 한다.

프랑스 작곡가 드뷔시(1862~1918)도 영웅을 소재로 작곡을 했는데, 앞의 곡들과는 다른 조용한 곡이다. 이른바 '영웅의 자장가'. 1915년 말에 벨기에의 왕 알베르 1세와 그 병사들을 칭송하기 위하여 쓴 곡이다. 자장가라는 말에서 영웅이 갑자기 애기처럼 느껴진다. 사실 영웅의 서사에는 그를 보살피는 여인이 꼭 등장하여 영웅을 어르고 위로해준다. 이 곡은 그런 여인의 나지막한 손길처럼 부드러우면서도 밤의 어두운 기운이 담겨 있는 묘한 곡이다.

영웅을 소재로 한 작품은 어느 시대나 환영받았다. 우리나라의 신화에도 여러 영웅이 있다. 이런 영웅의 이야기가 궁극하다면 국립오페라단이 마련한 창작오페라 '주몽'을 관람해도 좋을 것이다(6월 6~7일,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창작오페라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탈리아 오페라의 형식을 따르되 한국어와 한국적인 느낌이 강한 음악으로 된 장르를 일컫는다. 창작 오페라의 맛도 보고, 교과서와 역사서로만 만나던 영웅의 신화를 오페라의 음악으로 접하는 것도 영웅을 만나는 색다른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사람은 이성적인 동물이라고 하지만 습관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전과 다른 환경을 만나더라도 습관에 따라 "하던 대로"를 외친다. "하던 대로"가 몇 차례가 막히면 그제야 서서히 다른 방식을 생각하게 된다. 지금 우리나라는 각종 사건 사고가 되풀이해서 일어나고 있다. 지상과 수상과 공중을 가리지 않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정부는 원인의 철저한 분석과 완벽한 대책의 마련을 외치지만 공염불에 가깝다.

왜 그럴까? "이쯤 하면 되겠지!"라고 선을 긋는 것이다. 정부가 이렇게 선을 그으면 학계와 언론계에서 그 한계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철저하게 추궁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후한시대를 살았던 왕충의 이야기를 들어볼 만하다. 그는 가슴에 세상을 고칠 웅재대락을 품고 있었지만 한직을 떠돌았다. 그는 공직에 참여하여 큰 세상을 대면할 수 없자 당시에 있었던 모든 논의와 학술이 얼마나 진실한지 얼마나 허망한지 분석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담론을 저울질하여 값을 매기겠다는 '논형(論衡)'의 저술로 이어졌다.

왕충은 '논형'을 하는 작업 중에 공자(孔子)도 비껴갈 수 없었다. 춘추시대 공자는 세상을 구하자고 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며 '논어(論語)'를 남겼다. 한 제국에 이르러 공자와 '논어'는 침범할 수 없는 엄청난 권위를 가졌다. 하지만 왕충은 '논어'의 모든 말이 금과옥조와 같은 귀한 말이 아니라며 검증의 필요성을 외쳤다.

"바로 파악되지 않으면 마땅히 물어서 밝히고, 제대로 이해되지 않으면 마땅히 따져서 끝까지 파헤쳐라!"(不能輒形, 宜問以發之. 不能盡解, 宜難以極之.)

언론은 시민을 대신하여 납득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명확할 때까지 파헤쳐야 한다. 그래야 잘못이 가려지고 책임 소재가 드러나서 문제가 쌓이고 쌓이는 '적폐'가 되지 않는다. 적폐가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를 끝까지 파헤치지 않고 그냥 얼버무리는 습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문제의 밑바닥까지 진실을 찾아낸다면 사건 사고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실마리를 찾을 것이다.